

# 알레산드로 발리냐노(Alessandro Valignano)와 적응주의 선교 방식

심 백 섭\*

- I. 유교와 그리스도교간의 대화, 그 역사적 단초
- II. 알레산드로 발리냐노의 생애와 일본에서의 선교방법
- III. 적응주의 선교방식의 형성 요인과 그 배경
- IV. 온고지신: 유교와 그리스도교간의 대화의 미래를 위한 숙고의 계기

## I. 유교와 그리스도교간의 대화, 그 역사적 단초

현대 사회, 특히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수식하는 주요한 용어 중의 하나는 종교 다원주의이다.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 현상은 가치관의 혼란과 현실종교 세력들 사이의 갈등 또는 알력 등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내는 한편, 상호 화해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더 풍부하고 높은 차원에서 정신적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현실화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sup>1)</sup> 종교간의 대화는 바로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요청되는 중요한 종교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간의 대화 중에서도 유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대화는 더욱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한스 쾨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유교와 그리스도교는 상호 교류의 역사가 짧고 서로 낯선 관계인만큼 상호 이해와 보완의 필요도 크다는 사실이다. 쾨에 따르면, 유교는 중국에서 발원한 유태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의 첫 번째의 커다란 종교적 흐름과 인도에서 발원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의 두 번째

\*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1) 김종서, 「종교집단간의 상호이해 — 종교간 대화를 중심으로」,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 V,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213-215.

째 종교적 흐름과 함께 세 번째의 커다란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흐름은 인도 유럽어족의 문화권에 공통되는 신화적 사상적 문화요소를 지니고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승불교의 중국 유입 등이 이루어졌지만,<sup>2)</sup> 첫 번째와 세 번째 흐름은 16, 17세기에 예수회 선교사들의 활동 이전까지 서로에 대한 무지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특히,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볼 때 유교는 그 어떤 종교 문화보다도 더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대상이다. 그리스도교는 일찍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 부침했던 제 종교들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그리이스, 로마, 게르만 민족들, 그리고 인도 문명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적지 않은 대면과 접촉의 역사를 통과해 왔다. 많은 그리스도교 지성들이나 선교사들은 유교보다는 불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유교가 중국이나 한국에서 차지하는 사회 문화적 또는 종교 사상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3)</sup> 특히, 일본은 물론 한국에 이어 중국의 국제 정치적 경제적 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리스도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미 사회와 유교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교와 유교 사이의 상호 이해의 작업은 그 중요성을 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줄리아 칭이 지적하듯이, 그리스도교와 유교 사이의 이 같은 상호 이해의 작업을 위해 역사상 양 종교가 구체적으로 만난 것에서부터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나 그동안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칭은 이것이 “역사상 실제로 나타난 문제이고 아직도 실재하고 있는 문제”로서, 유교에 대한 예수회의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번역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것이다.<sup>4)</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교에 대한 예수회의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테오 리치 등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가 아니라 일반인에게는 아직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알레산드로 발리냐노라는 예수회 동양 순찰사라는 사실이다.

그는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교회사와 문화사에서 다른 어떤 선교사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주 마테오 리치

2) 이상, 한스 쾨링/줄리아 칭 지음, 이낙선 옮김, 『중국종교와 그리스도교』, 경북: 분도출판사, 1994, pp.11-19를 참조

3) 줄리아 칭 지음, 임찬순 최효순 옮김, 『유교와 기독교』, 서울: 서광사, 1993, pp.21-22.

4) 줄리아 칭, 같은 책, p.19.

신부나 아담 샬 신부, 그리고 그들의 동료 예수회원들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들은 바 있다. 또 우리는 한국 교회가 17세기 초 그들 예수회원들이 쓴 서학서들을 읽고 그에 영향받은 일부 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발리냐노가 없었다면 마테오 리치도 없었을 것이요, 따라서 리치의 다른 어떤 동료 예수회원들도, 어떤 한역 서학서도 없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과학과 철학,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괄목할 만하면 서도 동시에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선교 활동은 예수회 동양 순찰사였던 알레산드로 발리냐노의 의욕과 통찰, 상상력, 결단, 그리고 허락을 통해서 구상이 되었고 실행이 되었다. 리치를 선발하였고, 또 리치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 사람도 바로 발리냐노였다. 그리스도교 용어의 중국어 번역과 한역 서학서의 저술, 그리고 전례 문제에 대한 리치의 결정을 최종 승인해 준 사람도 그였다. 따라서 1706년 선포된 강희제의 황제 칙서, “이 마두(아래의 주를 참고)의 예법”이라고 불린 것도 사실은 원래는 발리냐노의 방식이었던 것이다.<sup>5)</sup>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도 중요한 문제인 중국 전례 논쟁에 관한 긴 역사에 대해서 적지 않게 들어 봤을 것이다. 그러나, 앤드루 로스에 따르면, 이 논쟁의 중심 문제는 “토착화 과정의 이러 저러한 세부 내용이 온당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주로 이태리계인 일단의 예수회원들이 아직도 타블라 라사 방식<sup>6)</sup>이 당연시되던 시기에 일본과 중국을 무대로 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급진적인 토착화 방식을 펼쳐나가기에 이르렀을까 하는 것”이다.<sup>7)</sup> 우리는 이 중심 문제에 대해

5) O'Malley J., et al eds., *The Jesuits: Culture, Sciences and the Art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1999, 343; Ross AC., *A Vision Betrayed: The Jesuits in Japan and China 1542-1742*, Orbis Books; Maryknoll, New York, 1994, p.32; Ucerler MAJ., *Sacred Historiography and its Rhetoric in Sixteenth-Century Japan: An Intertextual Study and Partial Critical Edition of Principio y Progreso de la religion christiana en Japan [...] (1601-1603) by Alessandro Valignano, vol I*, Champion Hall; Michaelmas Term, 1998, p.63; 이순자, 「傳來 初期 東아시아에서의 그리스도교 神觀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p.22-23. 여기서 이 마두는 마테오 리치의 중국식 표기인 利 瑪竇(利=리치, 瑪竇=마테오)를 한국어 발음으로 적은 것임.

6) 타블라 라사 방식이란... 선교 대상 지역을 마치 종교적 문화적 백지 상태인 양 간주하여 모두 일망타진하듯이 집단 입교시키는 방식으로서, 인도나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적용되었음. 인도와 동남아에서 적용된 이러한 선교 방식에 대해서는 이순자, 위의 책, pp.8-14를 참조

7)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341.

서 제Ⅲ부에서 다룰 것이나, 그 이전에 먼저 제Ⅱ부에서 그의 생애 전반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특히 일본에서의 그의 선교 방법에 초점을 맞춰 볼 것이다.

## Ⅱ. 알레산드로 발리냐노의 생애와 일본에서의 선교방법

### 1. 알레산드로 발리냐노의 생애

알렉산더 발리냐노는 1539년 스페인의 통치를 받는 이태리 중부의 압루지(Abruzzi) 지방에 위치한 치에티(Chieti) 시(市)에서 명망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당시 교황이던 바오로 4세의 가까운 친구였다. 1557년(18세)에 르네상스 학문의 중심지로 유명한 파두아 대학교(the University of Padua)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얻었다. 그는 교황청 법률 담당으로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바오로 4세 사후, 뜻 밖의 시련을 맞게 되었다. 어떤 젊은 여인의 면상에 칼을 휘두른 혐의로 1562년 말(23세)부터 1564년 3월(25세)까지 투옥된 일이 발생한 것이다.<sup>8)</sup>

그 후 그는 1566년(27세)에 예수회에 들어 왔다. 이전에 공부한 것을 인정받은 그는 일찍이 1571년(32세)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잠시 로마의 수련원에서 수련장으로 일했는데, 여기서 마테오 리치는 그에게서 수련을 받았다. 1573년(34세)에 중대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서른 넷에 불과한 젊은 사제가 동양 순찰사(Visitor to the East)로 임명된 일이다. 바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에서 일본에까지 뻗어 있는 예수회의 모든 선교사들의 최고 장상이 된 것이다. 새로운 예수회 총장인 에버랏 머큐리안(Everard Mercurian)의 눈에 발리냐노의 능력이 아무리 미더워 보였다 하여도, 그를 예수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의 하나인 동양 순찰사로 임명하기로 한 것은 지극히 대담한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9)</sup>

발리냐노는 1573년(34세)에 로마를 떠난 다음, 1574년(35세)에 리스본을 떠나 고아에 도착했다. 1577년(38세)까지 인도에 머물렀고 1579년(40세)까지 말라카와 마카오에서 머물렀다. 1579년에 마침내 일본에 당도하였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일

8) Ucerler, 앞의 책, pp.29-31; Ross, 앞의 책, pp.32-33; Ronan CE., et al eds., *East Meets West the Jesuits in China, 1582-1773*, Loyola University Press; Chicago, 1988, p.32.

9) Ross, 앞의 책, pp.33-34; Ronan CE., et al eds., 앞의 책, p.32.

본 선교는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회 사업이었다고 한다. 그가 일본에서 보낸 시간은 도합 십년 정도이다. 첫 번째 일본 방문(1579-1582 / 40-43세)은 오다 노부나가의 통치기와 일치하고, 두 번째 방문(1590-1592 / 51-53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치기와 일치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방문(1598-1603 / 59-64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통치기와 일치한다. 1583년(44세)까지 그는 광대한 지역의 순찰사였다. 그 후부터 1587년(48세)까지는 인도 관구장이 되었고, 그 후부터 1595년(56세)까지는 다시 앞에서 언급한 지역을 관할하는 순찰사가 되었다. 1595년(56세)부터 1606년(67세) 사망할 때까지 그는 역시 순찰사이기는 했지만 이때는 일본과 중국에 한정된 예수회 선교 담당이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의 취향에 맞는 것이었다.<sup>10)</sup>

그가 놀랍도록 급진적인 선교 정책을 구상하고 일본과 중국의 예수회 선교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그의 생애를 거의 둘로 나누었을 때의 후반기, 즉 1573년(34세)에 동양 순찰사로 임명될 때부터 1606년(67세)에 사망할 때까지에 해당된다. 특히, 그의 첫 번째 일본 방문이 중요하다. 그것은 이 시기에 그가 철저한 선교 재조직 작업에 몰두하는 한편으로 선교 정책에 관한 일반 원칙들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이다.<sup>11)</sup> 슈테(J. F. Schutte)의 저작, 『발리냐노의 일본 선교 원칙』 1, 2권(*Valignano's Mission Principles for Japan vol. I & II*)과 우서러(M. A. J. Ucerler)의 저작, 『16세기 일본의 종교사 서술과 그 수사학』(*Sacred Historiography and its Rhetoric in Sixteenth-Century Japan*)은 발리냐노의 첫 번째 일본 체류기 동안의 그의 선교 방법에 관한 요체를 파악하는 데에 좋은 참고가 된다.

## 2. 알레산드로 발리냐노의 일본에서의 선교방법

1579년(40세)에 일본에 도착한 직후, 발리냐노는 실망했다. 그가 일본에서 본 것은 일본 교회의 상황을 이상적으로 그렸던 보고서들과는 적지 않게 달랐기 때문이었다. 왕성한 일본 선교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는 그에게 쓴 맛을 남기고 깨져야 할 하나의 환상이었다. 일본인들이 능력있는 국민임을 보고는 안도했지만, 동

10) Schutte JF., *Valignano's Mission Principles for Japan 1573-1582, Part I*,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St. Louis, 1980, pp.xv-xviii; Ross, 앞의 책, pp.44-45; Ronan CE., et al eds., 앞의 책, p.32; Ucerler, 앞의 책, pp.40-41.

11) Schutte, 앞의 책 part I, p.5.

시에 그들의 도덕적 성향 일부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감을 금할 수 없었던 점이 또한 그를 힘들고 혼란스럽게 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비판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듬해의 첫 번째 자문회의 때까지는 균형 감각을 되찾았고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sup>12)</sup>

예수회 선교의 문제점은 많은 경우 프란시스 캐브랄(Francis Cabral)이 택한 방법 때문이었다는 결론도 내리게 되었다. 캐브랄은 포르투갈 군인 출신으로서 1570년에 선교 장상으로 파견된 열정적인 설교가였다. 발리나노가 발견한 것은 캐브랄의 엄격한 훈련 방법과 민족적 차별 의식으로 말미암아 일본인과 유럽 선교사들 간에 불화와 적개심이 일게 되었다는 점이다. 발리나노는 캐브랄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인을 대할 때에 평등하고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리나노는 남을 대할 때에 온화한 태도(*il modo soave*)를 취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sup>13)</sup>

발리나노는 선교사들간의 토론을 위한 선교 자문회의를 공식적으로 소집하였다. 그 목적은 선교 장상들이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상황에 대한 분명하고 자세한 그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자문회의는 2년의 기간에 걸쳐서 세 곳의 개최 장소를 택해 열렸다. 첫 번째 그룹은 붕고에서 1580년 8월에 소집되었고 두 번째는 1581년 7월에 고키나이에서 모였으며 세 번째 모임은 1581년 12월에 나가사키에서 열렸다.<sup>14)</sup>

1580년의 회의의 경우, 식사 문제, 일본식 예의 준수 문제, 가난뿐 아니라 민족 관습을 고려한 제복 착용 문제, 그리고 손님 접대 문제 등을 토론한 다음, 지역 상황에 더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하였다.<sup>15)</sup> 자문회의의 토론의 결과, 일본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 1580년에 대학이 설립되었다. 일본에 적합한 고등 교육은 발리나노가 놓은 선교 정책의 초석 중 하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6)</sup> 이와 병

12) Ucerler, 앞의 책, p.57; Schutte, 앞의 책 part I, p.271.

13) Ucerler, 앞의 책, p.58; Schutte, 앞의 책 part I, pp.251-260.

14) Ucerler, 앞의 책, pp.56-57.

15) Schutte JF., *Valignano's Mission Principles for Japan 1573-1582, Part II*,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St. Louis, 1985 pp.41-46.

16) 이 점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한국 천주교의 경우 고등 교육 기관 설립에 매우 등한시한 것과 비교됨은 물론, 한국 개신교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받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the Nevius Method)과 그것을 기초로 한 한말의 선교 정책이 수준 높은 한국인 지도자 양성을 기피했던 사실과 비교해도 아주 선구적이고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광, 『한국 천주교 200년』, 서울: 햇빛출판사, 1989, pp.69-70; 이만열, 『한국 기독교사 특강』, 서울: 성경읽기

행하여 중요성을 지닌 또 하나의 선교 전략은 순전히 유럽 문화적인 형태로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제시하는 일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었다.<sup>17)</sup>

자문회의는 이밖에도 1581년에 상세한 규범들의 공식화를 담은 책자를 *Advertimentos e avisos acerca dos costumes e catangues de Jappao*(이하 *Advertimentos*로 약칭)라는 제하의 결과물로 내놓기도 했다. 이 책자는 유럽 선교사들과 일본인 사이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서, 음식, 청결, 복장, 그리고 자신과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말할 때의 공경 예법 등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sup>18)</sup> 이러한 작업에 의거하여, 지역 관습, 특히 예의 범절에 관하여 존중하려는 갖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회 총장 아콰비바(Aquaviva)가 비판한 대로, 관습에 대한 그의 접근에는 불승들의 서열 관행에 밀착해 있다거나 또는 집착해 있다는 등의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었다.<sup>19)</sup> 그는 승려들이 서열에 따른 차별을 따르며 각 서열에 맞는 법식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들도 일본인을 대할 때에 서열에 맞는 여러 법식들을 차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였다.<sup>20)</sup> 발리냐노는 일본의 귀족주의적 사회를 네 계급으로 구별하고는 그 일본인들과 함께 어떤 권위를 얻고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 주었다. 그는 권위주의적 관행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오직 순응 내지 추종이나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교관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발리냐노의 문화적 적응 정책은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볼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가히 선구적인 것이었고 혁명적이라고까지 할만한 것이었다. 이 점에 관해서 캐브랄의 엄격하고 자국문화 중심적인 태도가 당시 동아시아의 유럽 선교사들 사이에서 예외가 아니라 널리 통용되는 당연지사, 규범과 같은 것이었다. 발리냐노는 유럽적인 형태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교적 선교 활동을 발전시켰으며,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일본과 중국의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가 일본적이고 중국적인 형태로 발전하도록 하였다.<sup>21)</sup> 그의 이러한 선교 전략은 이제 단순히 물리적 혼합

사, 1987, pp.55-58; 민경배,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7, pp.17-23 등을 참조.

17) Ucerler, 앞의 책, pp.57-61; Schutte, 앞의 책, part II, pp.19-21. 110-111.

18) Ucerler, 앞의 책, p.62; Schutte, 앞의 책, part II, pp.155-164.

19) Ucerler, 앞의 책, pp.62-63.

20) Schutte, 앞의 책, part II, pp.163-164.

21) Ucerler, 앞의 책, pp.63-64.

물(mixture)이 아니라, 화학적 용액(solution)과 같은 것을 발생시키는 결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 Ⅲ. 적응주의 선교방식의 형성 요인과 그 배경

#### 1. 적응주의 선교방식의 형성 요인

여기서 제기되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그의 상상력 풍부하고 창조적인 선교 정책은 어디서 유래하는가이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 동아시아 내의 예수회를 이끌어 유럽 제국주의(European imperialism) 혹은 유럽 중심주의(Europeanism)를 탈피한 선교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가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개신교와 카톨릭 모두 그리스도교를 유럽 문화와 동일시한 선교 방식을 따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이러한 시도는 더욱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sup>22)</sup> 과연 어떠한 배경과 요소가 동아시아에서의 그의 경험에 작용하여 이처럼 참신하고 과감하고 선진적, 급진적인 선교관(the creative, bold and radical mission concept)을 형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구가 가능하다.

첫째, 그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 Xavier)의 영향을 받았음을 생각할 수 있다. 하비에르는 희망봉에서 시작하여 일본까지 뻗치는 이 광대한 영역을 책임 맡은 최초의 예수회 장상으로서 바로 발리냐노의 전임자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발리냐노가 도착하기 꼭 30년 전이 되는 1549년에 하비에르가 도착한 이래, 발리냐노는 하비에르를 적응주의 선교 정신과 방법의 고안자요 선구자로서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있던 각별한 모델이기도 하였다는 점이다.<sup>23)</sup> 하비에르는 과학과 윤리가 동아시아 사회에 진입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발리냐노는 하비에르의 문화적 적응 방법을 전수받아 더욱 발전시킨 데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동아시아에 그것을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하고 정착시키기도 하였던 것이다.<sup>24)</sup> 더구나, 발리냐노가 도착하기 전에는 적응 정책(the accommodation policy)이 일본에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적응주의를 예수회

22)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341.

23) Schutte, 앞의 책, part II, pp.315-316.

24) Ronan CE., et al eds., 앞의 책, pp.24-27, 33-34.



선교 전략(the Jesuit missionary strategy of accommodation)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인물은 발리냐노이었던 것이다.<sup>25)</sup> 하비에르의 영성과 활동이 동아시아에서 행사한 발리냐노의 선도적 역할에 미친 영향은 간접적이고 제한된 것이며, 그만큼 발리냐노의 역할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비에르와 발리냐노는 예수회 영성을 공유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상황에 대한 적응은 이 영성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개개인이 예수회의 양성(formation)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적응주의 정책에 대한 동의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sup>26)</sup> 그러나, 그것은 예수회원 각자가 자신의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돕고 적응 정책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수회원은 자신의 사목적 업무(ministry)를 수행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하도록 교육받는다. 이러한 영성적 양성과 하비에르의 모범은 발리냐노에게 새로운 기반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신을 북돋아 주었다.<sup>27)</sup>

하비에르와 발리냐노가 여러 아시아 민족들과 문화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선교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두 사람의 아시아 민족관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일본인과 중국인을 우수한 민족으로 보았다는 유사점이 있다. 일본 문화 안에 우상 숭배, 자살, 살인, 문란한 성문화 등 죄스러운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희랍인이나 로마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때때로 발리냐노는 인도인과 말레이 민족에 대하여 거만하게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 반해, 하비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sup>28)</sup>

모란은 일본에 대한 발리냐노의 전반적인 열정은 일종의 계급 차별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발리냐노는 상류층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일본과 중국을 비유럽 민족 중에서 상류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 모란이 제시하는 논거이다.<sup>29)</sup> 발리냐노와 그의 정책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

25)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p.353-354.

26)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354.

27)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346.

28)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347.

29) Moran JF., *The Japanese and the Jesuits: Alessandro Valignano in Sixteenth-Century Japan*, Routledge; London, 1993, pp.97-114.

다. 그러나 평가하기에 앞서 우선 균형있게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 점에서 모란의 비판은 동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발리나노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해하는 데에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란도 지적하듯이, 발리나노의 주된 표적이 늘 지배 계층이었다고 하더라도 발리나노가 평민들(the common people)에게 무관심했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sup>30)</sup>

하비에르의 경우에서와 같이, 발리나노의 아시아 문화관은 동아시아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문화에 대한 개방적 시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발리나노는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관습에 애착을 느꼈고 그의 개방적 정신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편견에 의해 제약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페루의 관구장이자 동료 예수회원인 호세 데 아코스타(Jose de Acosta)가 언급한 ‘야만인들’의 세 가지 범주(the three categories of ‘barbarians’)와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sup>31)</sup> 더구나, 그의 사명은 아시아의 봉건제적 상황 하에서 지배 계층으로부터 후원을 얻어야 할 필요를 고려해야 했던 것이다. 발리나노의 아시아 문화관이 어떤 문제를 지녔건, 분명한 사실은 동아시아의 고급 문화들에 대한 그의 평가(the appreciation of the advanced cultures)가 선진적, 급진적인 선교 방법을 형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 2. 적응주의 선교방식의 형성 배경

결국, 하비에르의 모범과 예수회 영성, 그리고 발리나노 자신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의 평가(open-minded appreciation) 등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발리나노의 창의적 접근(innovative approach)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타자(the Other)’로서의 동아시아 민족과 문화이다. 토착화에 대한 급진적인 접근(a radical approach to inculturation)은 예수회원들이 동아시아 문화들을 만난 다음에 이루어진 한 결과물로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sup>32)</sup> ‘타자’가 예수회의 적응주의 전략에 미친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스탠다엣(Standaert)의 주장에 의하면, 유교의 ‘문화적 강령(cultural imperative)’에 대한 적응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도였다.<sup>33)</sup>

30) Moran JF., 앞의 책, p.114.

31) Ucerler, 앞의 책, p.68.

32)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348.

선교 정책은 선교사와 타자의 상황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발리냐노는 선교사들의 행태에 대한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의 비판과 주재국의 관습과 예의를 따라야 한다는 그들의 충고에 대해서 일본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보았다.<sup>34)</sup> 그러나 이러한 타자로서의 문화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캐브랄과 같은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선교사들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얼마든지 무시될 수도 있는 것이다.<sup>35)</sup> 이것은 타자의 문화적 상황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신의 배경도 선교론적 태도(a missiological attitude)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기서 우리는 발리냐노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그의 극적인 선교론적 도약(breakthrough)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한 로스의 글에 주목하게 된다.<sup>36)</sup> 로스는 예수회 총장인 에바라르드 머큐리안이 왜 발리냐노를 동양 순찰사로 임명하기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는가의 물음에 대해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였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결정은 예수회와 포르투갈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회 내의 내부적 관계(internal relations within the Society)를 함축하고 있다. 총장은 발리냐노 순찰사를 신뢰했고 발리냐노가 동양에서 새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발리냐노도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당국자들이 받아들인 방법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발전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sup>37)</sup>

발리냐노의 적응 정책은 유럽 중심주의(Europeanism)에 대한 그의 반대와 직결되어 있다. 유럽의 정치적인 제국주의, 특히 이베리아 팽창(Iberian expansion)을 그리스도교 선교와 동일시하는 데에 대한 반대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로마 교회(즉, 바티칸 교황청)와 예수회 총장의 입장과 일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의 카톨릭 통치자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던 자신들의 자율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 더구나 발리냐노는 이태리 남부의 여느 지방과 같이 스페인 지배 하에 있던 도시 출신이었다. 스페인 관리들은 자주 이태리인들을 유럽의 ‘인디오들’(the ‘Indios’ of Europe)이라고 언급하곤 했다.<sup>38)</sup>

33)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p.355-358.

34) Schutte, 앞의 책, part II, p.41; Ucerler, 앞의 책, p.61.

35)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344.

36)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에 실린 Ross의 글과 Ross AC., *A Vision Betrayed: The Jesuits in Japan and China 1542-1742*, Orbis Books; Maryknoll, New York, 1994를 지칭함.

37) Ross AC., 앞의 책, pp.34-35;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339.

38) Ross AC., pp.xi-xv.

내부적 문제(the internal problem)라는 것은 예수회적 ‘일 추진 방식’(the Jesuit ‘way of proceeding’)에 대한 바른 이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과 갈등을 말한다. 발리냐노와 예수회 총장은 예수회 포르투갈 관구의 가혹한 권위주의적인 리더십(the rigorous authoritarianian leadership)에 대해 반대하였다. 발리냐노는 이러한 스타일을 엄격할 뿐 사랑이 없는 통치(ruling with severity and not love)라고 규정하였다. 더구나 그들 포르투갈 지도자들은 그곳 궁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면서 이전 총장 프란시스코 보르지아(Francis Borgia)와 당시 총장 머큐리안 모두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sup>39)</sup>

발리냐노의 창의성 형성에 영향을 준 여러 복합 요소 중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할 것은 그의 안목에 대해 지적인 배경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태리와 로마 신학교의 카톨릭 휴머니즘(the Catholic Humanism of the Collegio Romano)이다.<sup>40)</sup> 일본의 역사학자, 이데 카츠키(Ide Katsumi)에 따르면, 발리냐노와 캐브랄 사이의 불일치는 단순히 선교 전략의 충돌뿐만이 아니라 인간성 자체에 대한 개념의 괴리에도 기인한 것이었다고 한다. 발리냐노의 철학적 배경을 이룬 것은 파두아 대학과 로마 신학교에서 형성된 아리스토텔레스적 골격(Aristotelian framework)이었다. 그리하여 발리냐노는 만일 아리스토텔레스가 희랍문화를 존중했다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것이다.<sup>41)</sup>

당시의 예수회원들과 공유한 그의 신학적 배경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고전적 휴머니즘과 스콜라 학파 사이에, 그리고 자연과 은총 사이에 양립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일 추진 방식(the way of proceeding)을 동아시아 환경에 적응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sup>42)</sup> 그러나 예수회의 신학적 비전(vision)은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해석들과 견해들에 대해 열려있는 것이다.<sup>43)</sup> 따라서 우리는 해석 행위가 이루어지는 각자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1570년부터 1620년까지 있었던 정책의 주요 단계에서 핵심 인물의 다수가 로마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이태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sup>44)</sup>

39) Ross AC., 앞의 책, pp.34-38;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p.339-341.

40)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349.

41) Ucerler, 앞의 책, pp.64-69.

42) Ucerler, 앞의 책, pp.69-76.

43) Ucerler, 앞의 책, p.74. 예수회원의 신학적 사상적 성향은 각자 처한 상황과 그 안에서 식별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허용하므로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포진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 IV. 온고지신: 유교와 그리스도교간의 대화의 미래를 위한 숙고의 시기

요컨대, 우리가 알레산드로 발리냐노의 생애를 보면서 주목한 점들은 일본에 처음 머무는 동안 동양 순찰사로서의 선교 정책과 활동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과 급진적 적응 정책의 요소들과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34세의 나이에 순찰사로서 임명될 때까지의 전반부 인생은 고전적 휴머니즘과 예수회 영성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후 임종 때까지의 33년간의 후반부 인생은 동아시아의 창의적인 선교 정책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한 가지 예를 택하여 그가 일본에 첫 번째 체류한 것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의 선교관은 일본 민족과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친절한 태도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 설립과 *Advertimentos*라고 칭한 상세한 실용적 지침서의 공식화로 구체화되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붕고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권위주의적인 관습에 밀착되었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의 접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선구적이었고 당시로서는 혁명적이기까지 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극적으로 창발적인 접근의 요소들과 배경에 대해 여러 측면들에서 분석하였다. 발리냐노의 정책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선교론적 모델과 예수회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영적 양성 등과 같은 종교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만 영향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시에 사회 문화적 변수들에 의해서 촉발되기도 한 것이었으니, 이러한 변수들은 한편으로는 ‘타자’에 해당되는 동아시아적 상황이라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 자신을 둘러싼 수도회(교회)와 세속 국가 간의 관계 및 수도회 내부의 역할 관계 등 유럽적 배경이 되는 것,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선교라는 것이 그만큼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사회 문화적인 현상임을 의미하는 데에서 연유된 결과일 것이고, 발리냐노의 선교 정책 또한 이에 상응하여 다수의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종교간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sup>45)</sup>. 그

44) O'Malley J., et al eds., 앞의 책, p.349.

45) 여기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선교와 종교간의 대화의 문제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시켜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선교가 어떤 형태든 권력의식과 특권 추구를 전파하는 것과 동일시된다면 그러한 관점에서의 선교는 종교간 대화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한 지난날의 선교에 대해서는 ‘반(反)선교’를 선언하는 한편, 토착

것은 한편으로는 종교간 대화가 종교 또는 신앙의 문제만을 다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주제들이 함께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그러한 종교외적 주제들이 관련되어 대화가 이루어질 때 대화 당사자 쌍방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나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적어도 서구의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중국 또는 동아시아의 유교는 종교적 차원과 철학 윤리적 차원 사이의 분리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sup>46)</sup>을 고려할 때 더욱 유념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고려할 때, 종교간의 대화는 종교나 신앙의 주제만이 아니라 세속적 문제의 해결이나 세속적 목표의 공유와 같은 주제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실제로 종교간의 대화가 명시적인 세속적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이라는 것이 현대 종교간 대화의 특징으로 지적되고도 있다.<sup>47)</sup> 세속적 주제를 배제하고 종교적 주제에만 집중된 대화는 의미있는 대화를 지향한 것일 수는 있으나 효과적인 대화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종교적 주제를 회피한 채 세속적 주제만을 다루는 대화는 효과있는 대화는 될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도 의미있는 대화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종교간의 대화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주제와 세속적 주제가 적절하게 통합된 형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각 종교가 질병이나 가난, 개인적 집단적 차원의 소외나 부당한 모멸의 경험 등, 삶의 세속적이면서도 종교적이기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관점과 방법, 어떤 도움 또는 해답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일과 구체적으로 서로 어떻게 협력할

---

문화에 깊이 삽입(insertion)되어 적응(adaptation)함으로써 토착화(inculturation)를 이루어야 한다는 새로운 선교관을 내세우게 된 것이 오늘날 가톨릭의 입장이 되었다. 선교와 종교간의 대화, 토착화, 삽입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새롭게 변화된 가톨릭의 입장과 관련하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 사명』(RM), 55항; 『교회 헌장』(LG) 14항; 『선교교령』(AG), 7항; 김웅태, 『종교의 현대적 적응 — 한국 그리스도교의 토착화를 중심으로 —』,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1, pp.143-195; R. 프레들리 지음, 박일영 옮김, 『현대의 선교 —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9, pp.161-165 등을 참고

46) 유교가 종교적 차원과 철학적 차원을 동시에 갖는 가르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줄리아 칭 지음, 임찬순·최효선 옮김, 앞의 책, pp.32-37과 한스 쾨링/줄리아 칭 지음, 앞의 책, p.113을 참조

47) 김종서, 앞의 글, p.236.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 등이 의미있고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알레산드로 발리냐노의 사후 4세기가 지난 오늘의 관점에서 돌이켜 보건대, 발리냐노는 여전히 종교적 대화와 문화적 화해를 위해 중요한 참고가 되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그가 하위 문화를 경시하고 동아시아의 자문화 중심주의를 간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적인 것이든 아시아적인 것이든 자문화 중심주의로 대표되는 그러한 문제들은 오늘날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한 난제로 남아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그의 개방적 시각이 문화적 유럽주의뿐만 아니라 서양의 정치적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교와 유교의 대화가 성공적이기 위해서 중요한 국면을 이룬다. 그리스도교 선교사이건 동양인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교가 문화적 유럽주의나 정치적 제국주의를 확산시키는 침병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혐의를 벗어나 얼마나 진정한 의미에서 토착화된 “동아시아인의” 종교와 문화가 될 수 있는가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대화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발리냐노의 의식은 동아시아의 전제주의적 질서, 권위주의적 관습, 그리고 일본의 호전성 또는 불법적인 한국 침략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최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국주의적 팽창의 문제라는 것은 파악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을 뿐더러 해결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리냐노가 동아시아 문화나 유교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대면하지 않고 안이한 유희적 태도 일변도로 흐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유교나 동아시아 문화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호의적인 태도만 앞세워 대화에 임한다면, 유교적 용어 문제나 전례 논쟁에서 보듯이 대화의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성공은 가능할지 모르나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작업 결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미봉책이 될 것이다. 유교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종교나 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능력을 키우고 그를 통해 지속적인 자기 쇄신과 풍부하고 자유로운 세계관 형성을 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류의 역사가 가장 짧았고 이질적으로 여겨져 왔던 그리스도교와의 대화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이다. 알레산드로 발리냐노의 선교 활동과 방법을 오늘날 유교와 그리스도교

의 대화의 차원에서 숙고해 보는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 또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유교적 지혜에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종교의 배경이 되는 동아시아와 서구의 국제관계의 중요성과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적 요청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응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 1990.12.7), 정하권 역,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1.
- 김응태, 『종교의 현대적 적응 — 한국 그리스도교의 토착화를 중심으로 —』,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1.
- 김중서, 「종교집단간의 상호이해 — 종교간 대화를 중심으로 —」,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 V,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민경배,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7.
- 이만열, 『한국 기독교사 특강』, 서울: 성경읽기사, 1987.
- 이순자, 『傳來 初期 東아시아에서의 그리스도敎 神觀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5.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 헌장』(Lumen Gentium, 1964.11.21); 『선교교령』(Ad Gentes, 1965.12.7),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 조광, 『한국 천주교 200년』, 서울: 햇빛출판사, 1989.
- 줄리아 칭 지움, 임찬순 최효순 옮김, 『유교와 기독교』, 서울: 서광사, 1993.
- R. 프레들리 지움, 박일영 옮김, 『현대의 선교 —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9.
- 한스 쾅 / 줄리아 칭 지움, 이낙선 옮김, 『중국종교와 그리스도교』, 경북: 분도출판사, 1994.
- Moran JF., *The Japanese and the Jesuits: Alessandro Valignano in Sixteenth-Century Japan*, Routledge; London, 1993.
- O'Malley J., et al eds., *The Jesuits: Culture, Sciences and the Art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1999.
- Ronan CE., et al eds., *East Meets West the Jesuits in China, 1582-1773*, Loyola University Press; Chicago, 1988.
- Ross AC., *A Vision Betrayed: The Jesuits in Japan and China 1542-1742*, Orbis Books; Maryknoll, New York, 1994.
- Schutte JF., *Valignano's Mission Principles for Japan 1573-1582, Part I*,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St. Louis, 1980.
- \_\_\_\_\_, *Valignano's Mission Principles for Japan 1573-1582, Part II*,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St. Louis, 1985.
- Ucerler MAJ., *Sacred Historiography and its Rhetoric in Sixteenth-Century Japan: An Intertextual Study and Partial Critical Edition of Principio y Progreso de la religion christiana en Japan [...] (1601-1603) by Alessandro Valignano, vol I*, Champion Hall; Michaelmas Term, 1998.

<Abstract>

## Alessandro Valignano Went to the East Because...

Shim, Paek-seop

Alessandro Valignano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missionary in the history of the East Asian Church and culture including of our country's. Without Valignano there would have been no Matteo Ricci, no other Jesuit companions and no books written by them.

Their brilliant and controversial apostolate of science, philosophy and Christian faith in China was conceived and carried out through the desire, insight, imagination, determination and permission of Alessandro Valignano, Visitor to the East of the Society of Jesus. Valignano chose Ricci; decided what he should study and how he would work. He affirmed Ricci's decision about the problem of translation and rites. Thus what was called 'the practices of Li Madou' by Kanxi emperor in the imperial rescript of 1706 was originally the way of Valignano.

The central question of the Chinese Rites Controversy is not whether this or that detail of the inculturation process was right or not, but how it came about that a group of mainly Italian Jesuits developed a policy of radical inculturation of the Christian faith into the Japanese and Chinese worlds in a period in which the tabula rosa approach had so far reigned supreme." We deal with this central question (in part III), but before that we examine his life in general and then focus on his missionary methods particularly in Japan (in part II).

In summary, we looked at the life of Alessandro Valignano, focused on his mission policy and activity as Visitor to the East during first stay in Japan, and the elements and background of the radical accommodation policy. The first half of his life until the appointment as Visitor at the age of thirty four

was influenced by classical Humanism and Jesuit spirituality. Through the second half, thirty three years until his death, he had a decisive role in shaping an innovative mission policy in East Asia.

As an example we considered his first stay in Japan. His mission concept, which was based on an open-minded and kind attitude toward the Japanese people and culture, was concretiz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lleges and the formulation of detailed practical guidelines entitled *Advertimentos*, both of which resulted from the Bungo consultation. In spite of the problem of adherence to authoritarian custom, his approach was undoubtedly pioneering and even revolutionary for his time.

We analyzed the elements and background of his dramatically innovative approach from multiple aspects. Valignano's policy was influenced not only by religious elements, such as the missiological model of Francis Xavier and the spiritual formation of identity as a Jesuit, but it was catalyzed also by socio-cultural variables comprising both the East Asian situation on the side of 'the Other' and the European backgroun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state on the side of the missionaries. As mission is both a religious and socio-cultural phenomenon, so Valignano's mission policy cannot be explained without considering multiple factors.

In conclusion, even viewed from the standpoint of today, four centuries after his death, he deserves to be called an example of cultural reconciliation and, in particular, of dialogue between Christianity and Confucianism. It is true that he neglected lower culture and ignored East Asian ethno-centrism. However, those problems including either European or Asian ethno-centrism has not been resolved until now.

It is also noteworthy that his open-minded perspective included opposition to Western political imperialism as well as cultural Europeanism. Valignano's consciousness remains the limit, though, in that he would not challenge East Asian autocratic order, authoritarian custom, and Japanese bellicosity or its illegal invasion of our country, Korea. Nonetheless, as is currently found in new liberalist policy, the problem of imperialistic expansion is not simple to

grasp and not easy to solve.

Key words: Alessandro Valignano, accommodation policy, religious elements,  
socio-cultural variables